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포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부흥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성탄절 메시지



구현되어야 할 성탄정신

이종윤 목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정신을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생활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성자의 비강(鼻腔)이요 격하(格下)며 죽음이고 희생입니다.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과 희생과 대속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체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 보겠다는 것은 재래 종교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성탄절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느냐는 물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라는 데에 성탄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상식이요 인간이 신을 받드는 것이 종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황송한데 섬기러 오셨다니 대체 무슨 말이며 어

인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정신을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생활화해야 합니다. 즉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섬기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체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성탄이 지닌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도 한 예는 일반 종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들어본 이야기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입

니다. 그러나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높아질 줄만 알았지 섬길 줄을 모르던 성탄정신은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봉사가 대속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의 인도주의자요 우리의 구주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죄인의 죄를 자기 것인양 대신 지시고 아파하시고 부끄럽게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성자의 비강이요 격하며 죽음이고 희생입니다.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난을 핑계로 받기만을 바라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 선물만을 기다리거나 대목이라는 구실로 매상고만 올리려는 상혼은 모두 성탄정신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산타클로스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과 희생과 대속의 삶을 살아 성탄절을 기해 북녘 땅에도, 혼돈이 거듭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도 주님의 마음이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오늘은 성탄축하 찬양예배
성탄절 예배 25일(월) 11시에 한차례
성탄절 새벽예배는 5시 30분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찬양대와 청년부 등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순서를 가진다. 또한 사랑부에서 준비한 성극공연을 있을 예정이다.

성탄 전야가 주일인 관계로 올해는 해마다 외부에서 개최했던 성탄축하 행사는 별도로 가지 않는다.

성탄절인 25일(월)에는 새벽 5시 30분에 성탄절 새벽예배를 드리고, 오전 11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성탄절 헌금을 드린다. 구제위원회(위원장: 이남호 장로)에서는 성탄절 헌금 전액을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송구영신예배

하나님 앞에서 목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예배를 1996년 1월 1일 0시에 드린다. 예배는 소동한 가운데 시작되므로 예배 시작 30분 전에는 입실을 완료하여 기도로운 준비하도록 한다.

'96청지기 수련회

1996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성숙한 청지기가 되자' 라는 주제로 열린다. 1월 7일(주일) 찬양예배 시 헌신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하여 직분별로 진행되다가 15일(월) 장로수련회를 마지막으로 하여 마치게 된다.



"그가 길이 다스리신다" -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에 성탄축하 찬양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찬양대 주관으로 예수님의 탄생, 수난, 부활 등을 다룬 헨델 곡(메시아)가 연주되는 동안 찬양대와 온 회중은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되어 지금도 살아 계셔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였다.

■ 특집

희망의 성탄... 예수님의 사랑으로

■ 성탄절 단상

잃어버린 베들레헴의 성탄절

임진태 (목사, 사랑부 지도)

먼 여행길에 지친 마리아와 요셉은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베들레헴 시내를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며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 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그들이 머물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온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장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낳으려는 마리아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자기의 잠자리와 쾌락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마굿간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기는 낳았지만 축하의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은 너무도 뜻밖의 사람들이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그들이 찾아온 것이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잃어버린 성탄절이었다.

* * *

백화점과 많은 상점들 그리고 호텔 앞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대형 트리들과 온갖 화려한 전구로 반짝이는 장식물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고 호텔에 들어가기 위하여 차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며 그들이 내고 있는 웃음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베들레헴 거리가 생각난다. 베들레헴 시내를 활보하는 사람들, 여관에 머물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다면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기 낳을 장소를 구하기 위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헤매이던 마리아와 마굿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마리아의 부르짖음이 들려온다.

"좀 도와주세요!"

잃어버린 성탄절이 될까 두려운 생각이 든다.



■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 - 새벽송

옥상의 찬양

송인옥 (청년부)



12월이 시작하던 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성탄절로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댄 우리 청년들은 어떤 회원의 '새벽송을 하자'는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한달 남짓 평화의 왕 되신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찬양을 연습하면서 청년부 회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평화가 넘쳐 흘렀다. 주일마다 마땅히 연습할 장소를 찾지 못해 겨울 바람을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옥상에서 한 시간이 넘게 연습을 하다보면 온몸은 추위로 뽕뽕 얼어붙곤 했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오늘 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면서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자 한다.

준비한 새벽송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찾아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위료가 필요한 곳을 찾아 평화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특별히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을 찾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아직까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실종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청년부 회원들이 헌혈을 하고 받은 헌혈증서들을 모두 모아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다. 각기 다른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듯 작은 사랑을 나누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모이고 모이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오늘 성탄의 신비를 노래하며 새벽을 깨우려 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 성탄절 아침의 기원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성남 (유년부 교사)

1995년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하신 주님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 한 해였다. 세월은 살같이 빨라 이제 1995년의 끝까지 달음질쳐 왔고 소란하기만 한 세상 중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왔다.

오늘날의 성탄절은 상업화되어 이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세태를 뚫아 닦하기에 내 신앙 역시 이기적인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내 기도는 자녀의 출세나 생활의 풍요함을 구하던 세태대의 어머니와 같지 않은가?

이날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의 주님, 하나님이신 분이 그 영광을 마다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날. 세상 죄를 지신 어린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오신 날. 이날 아침, 주님 닭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내게 주님은 당신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20:28).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주님의 모습에 나를 대입해보면서, 그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유년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간구하옵기는, "섬김의 주님 닭기 원합니다, 참 마음으로."

✦ 순례자 킬림 ✦

"주신 은총을 감사하자"

겨우 한 달란트 뿐이나고 받은 것 보며 불평도 원망도 해 보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비는 커녕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두 달란트 받은 이는 두배를, 다섯 달란트 받은 이는 다섯 배를 나보다 더 수고해야 할 터이니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5분의 1로 경감시키신 것이 아닌가.

나로 하여금 지금의 수고의 다섯 배를 더 하도록 배당하셨다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주께서 아시는 나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한 달란트를 배당하신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차별대우라고 불평하지 않았던가. 내게 주신 오늘의 은총이 과분한 줄 알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리라.

겨울 속에 푸르름을 담고

■ 성탄절 풍습

세계의 성탄절

전나무나 소나무 등에 화려한 장식을 다는 크리스마스트리는 고대 유럽의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 겨울 봄을 기대하며 상록수에 장식을 하던 것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새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었다. 옛날 독일에서는 트리에다 등글납작한 빵을 달았다. 나무를 쌓아 믿음·소망·사랑을 뜻하는 삼각 피라미드도 세웠다. 이것이 16세기에 크리스마스트리로 발전했다. 전세계로 퍼져 나간 것은 19세기 중엽이었다. 우리나라엔 20세기초 선교사들이 전했다.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빠질 수 없다. 북극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향은 지중해 터키지방인 것으로 여겨진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 니콜라스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산타클로스 되었다고 한다. 빨강 고깔모자와 붉은 옷, 하얀 수염의 이 할아버지는 문을 놓아두고 굴뚝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착한 어린이의 양말속에만 선물을 두고 간다. 19세기 이전 어린이는 이런 혜택을 못받았다는 설도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겐 성탄예배를 드린 후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앉아 함께 먹는 요리가 가장 관심을 끌지 모른다. 미국과 영국에선 칠면조가 주가 되고 프랑스에서는 치킨, 호주에서는 호깃이라는 양고기를 먹는다. 디저트로는 영국에선 과일·향료를 듬뿍 넣은 흑갈색 푸딩인 크리스마스 푸딩을 먹고 미국에선 둥근 케익을, 프랑스에선 장작처럼 생긴 커다란 케익을 준비한다.

성탄축하 말을 적어 주고받는 성탄카드 1843년 영국의 콜리 고안, 호슬레이가 그려 런던에서 판매된 1000장의 카드가 시초이다. 영어권에서 유행한 이 풍습은 이후 각국의 우편제도가 발달하면서 세계적 풍습이 되었다.

즐거운 노래라는 뜻의 캐롤은 14세기 영국에서 율동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15세기에 황금기를 구가한 캐롤은 한때 금지되기도 했지만 꾸준히 이어져 다시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로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있다.



■ 순례길에 만난 사람

- 사무실에 개인 기도실을 마련한 고윤화 권사 -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허바허바사장 사옥. 꽃과 화초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고윤화 권사님의 마음을 대변하듯 건물 곳곳에서 잘 가꾸어진 화초들로 가득했다.

13층의 회장실에 계신 고 권사님을 찾았다.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신비롭고 비밀한 일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체험했다는 권사님의 사무실 한 켠에는 개인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10분도 놀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업과 음악활동 등으로 늘 바빴지만 전도 기회를 갖기 위해 가능하면 영영택 택시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복음을 들려야 할 사람들을 매일 만나게 하셨습니다. 늘 다니는 길도 생소하리만치 차 안에서든 틈만 나면



■ 선교지 소식 - 케냐

“기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케냐에서의 3개월동안 날마다 보호하시며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 쿨루바에 서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저와 이곳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편지가 도착할 즈음이면 서울엔 성탄 계절이 무르익어 갈 것같이 성탄인사도 미리 드립니다.

저는 10월 16일 이곳 아루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풀어 주신 자연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요. 한국의 고요한 아침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날씨와 천둥·번개... 이런 것에 서조차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케냐에서의 3개월동안 좋은 현지인들을 제게 허락하시어 외롭지 않게 하였고 이들을 통해 아프리카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약간은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소아과 병동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미 안통하는 이곳에서 일하노라면 답답함과 실망스러움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항상 함께 하시마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 위로를 받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언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짜여진 병동 사역과 시장·마을·교도소 사역 속에서도 현지어를 배우는 일에 지치지 않고 더 열심을 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주 토요일 오후와 주일 오후에는 시장과 오드라마에서 이곳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뿐이었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길 기도합니다.

요즘 쿨루바 병원 내에 영적인 침체를 다소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오전 6시에 새벽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시간에는 동역하시는 김은희선교사님과 함께 쿨루바 병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전도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영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1995년 10월 24일 아루아에서 이미경 올림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기도)에 열중하곤 했습니다.”

사업장에 기도실을 마련할만큼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권사님은 찬양에도 남다른 은사가 있다. 다섯 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했다는 권사님은 성악을 전공했고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찬양은 늘 신앙생활의 한가운데 있었다. 세계 각지를 돌며 집회 중 찬양을 하면서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고, 조그마한 몸짓 하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힘이 닿는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쓴다는 권사님은 교회가 없던 지역에 1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셨고, 그 교회들의 자립을 도와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여러 번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남을 역설하셨는데, 권사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신비로움을 다 들으려면 며칠이 걸려도 모자랄 것 같았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일이 고윤화 권사님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 소식

고등부 송년행사 '아이노스의 밤'

고등부에서는 30일(토) 오후 4시에 '아이노스의 밤'을 연다. 시와 음악 등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사는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맞으며 주변의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고등부가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이다.

★ 아이노스(*αινος*) -

'이야기, 결심, 찬양' 등을 뜻하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의 찬양을 가리키는 말로 마태복음 21장 16절과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나타난다.

찬양위원회 모임

찬양위원회(위원장: 홍정호 장로)는 18일(월)에 찬양위원회 위원과 각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모임을 갖고, 새해의 음악예배와 찬양대 발전방안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 학습·세례식
20일(수) I, II부 예배 시 학습·세례식을 거행했다.

▲ 방위병 초청집회
21일(목) 서초·강남구의 방위병을 초청, 복음을 전하고 다과회를 베풀었다.

■ 광야의 소리

재앙의 날

김상철 (집사, 4교구)

그간 대형 참사와 재난이 빈발하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자금 노출로 온 나라에 신뢰붕괴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도 부패한 자신을 다시 발견케 된다. 권세와 이익에 너무도 약했고 또 급급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실은 권력 주변으로 몰려다녔고 당장 내게 이익되는 것이 아니면 옳은 일도 피하려 했다. 호사와 낭비와 거드름 피우기를 즐겼으며, 땀 흘려 일하기는 싫어했다. 저마다 자기 중심이 되어 감사할 줄 몰랐

고 희생할 생각은 아니했다.

이런 사회가 어찌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실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사상 최대의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전직 대통령의 권위가 치욕 속에 무너져 버렸고 전직 정치가들의 허상도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거리는 저마다 뽐내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막혀 있다. 모두들 지도자들의 죄악과 남의 잘못을 탓하고 있지만 고백과 회개의 몸부림은 찾아보기 힘들다.

역사의 주재시여! 이 민족이 어느때가 되어야 이 타락과 교만의 죄에서 떠날 수 있겠나이까? 위선과 안일에서 벗어나 공의와 소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나이까?

이러다가는 필시 재앙이 홀연히 닥쳐오리라. 아니 이 민족이 소생하여 의의 열정으로 부흥키 위해서라도 재앙이 한 번 필요할런지도 모

른다.

이 민족을 위한 재앙의 몽둥이는 잘 준비되어 있다. 바로 북한 공산집단이다. 그들은 95년을 통일 원년으로 하고 전쟁준비에 몰입해 왔다. 그런데 스스로는 미래의 희망도, 전략도 없는 가운데 미증유의 수해와 내부의 분란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공황에 빠졌다. 언제 무슨 일을 저지러지 아무도 모를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한국으로부터 쌀을, 미국으로부터 중유를 받았고, 전세계를 상대로 수재를 이유삼아 구걸할까지 벌였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자 이제 무장간첩을 보내 탐색전까지 벌였다. 정말 내일이라도 전쟁이 벌어져 우리가 그토록 탐하던 돈과 권세와 사치의 허망한 귀걸을 보게 될까봐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복돋워야 한다. 재앙을 앞에 두고도 가슴 벅찬 부흥의 새 시대를 품어야 하겠다. 오직 진리 안에서 인생설계와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 목회자·교우 동정 ■

- *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강원도에서 새해 설계를 위한 교역자 수련회를 가진다.
- * 이재권 장로·김연옥 집사(12교구)는 20일(수) '아산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수지에서 충남 당진군으로 이전했다. ☎ 0457-363-1414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9시
-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섬김의 주님을 본받아 성탄 정신을 체현할 수 있도록
2. 연말 연시 행사들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3.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4.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